

‘적응 끝’ 올라, 네일과 ‘V13’ 이끈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라가 제임스 네일과 ‘V13’을 겨냥한다.

‘에이스’ 네일을 붙잡은 KIA는 ‘빅리거’ 올라를 영입해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두 선수는 12일 KIA의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미국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서 나란히 볼펜 피칭을 하면서 2025시즌을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네일은 15개씩 2세트로 나눠 30개의 공을 던졌다. 네일은 자신을 상징하는 스윙퍼는 물론 투심, 포심, 체인지업, 커터 등을 시험했다.

올라도 투심, 포심, 슬러브, 커브, 커터,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26구를 소화했다.

4차례 볼펜 피칭을 마친 두 선수는 다음 단계는 라이브 피칭에 돌입한다. 새로운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올라는 이번 볼펜 피칭을 앞두고 코칭스태프에 ‘타자’를 요청했다.

라이브에 들어가기 전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투구를 위해 타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에 맞춰 한준수가 좌우 타석에 서서 올라의 실전 같은 피칭을 도왔다.

지금까지 올라의 흐름은 좋다.

외국인 선수의 KBO리그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적응력’은 만점에 가깝다.

일단 낯선 리그의 시작점인 스프링캠프 장소가 익숙한 미국이라는 점이 반갑다. 올라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에서 시차 적응 등의 문제 없이 기존 생활 방식 그대로 새로운 팀에 합류해 빠르게 KIA 선수가 됐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 즐겁게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 올라에게는 이미 KIA와 KBO를 겪어본 네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다. 올라가 KIA와의 계약이 결정된 뒤 가장 먼저 연락을 한 선수도 네일이다.

네일은 “올라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즌을 보내면서도 다른 유형의 투구 스타일과 방법 등 한국 타자들의 상대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고 말했다.

나란히 볼펜피칭 소화 시즌 준비
올라 “새로운 야구 너무 기대돼”
‘한국인’ 네일, 업그레이드 분주

두 사람은 틀이 나는 대로 자신의 투구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야구 지식을 나누고 있다. 네일은 자신이 지난해 경험한 관중석을 가득 채운 팬들과 부상 상황에서 보여준 팬들의 감동적인 응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다.

덕분에 올라도 팬들 앞에 서는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성향 자체가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올라는 그와 관련된 문신을 몸 곳곳에 새겼고, 앞으로도 새길 예정이다.

또 올라는 “새로운 야구를 경험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됐다”며 들뜬 마음으로 다음 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새로운 무대가 될 한국과 함께, 일본, 대만, 태국은 그가 평소 가보고 싶어 했던 여행지다.

“야구는 야구다”며 새로운 리그에 대한 격정 대신 기대감으로 캠프를 보내고 있는 올라. 앞선 볼펜 피칭을 통해 포수들로부터 강속구의 힘을 인정받았다.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그는 강속구의 위력을 더해줄 커브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강속구를 앞세워 “피하지 않는 강한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동료들로부터 “한국인이냐 됐다”는 평가를 받는 네일의 시즌 준비도 이상 없다. 지난 시즌 자신의 스윙퍼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대가 더 집요하게 승부할 것에 대비해 네일도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다.

그중 하나가 체인지업이다. 지난해 싱커와 스윙퍼로 재미를 봤던 그는 앞선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는 체인지업을 더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볼펜 피칭에서 네일의 공을 받아본 포수 한준수도 “체인지업이 많이 바뀌었다. 그림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회전이 포크볼처럼 온다”며 “올 시즌에도 좋은 피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라가 12일 미국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ML 스카우트들 “김도영 보러 왔다”

시카고 컵스·뉴욕 메츠 등 방문
오타니 에이전트도 캠프 찾아
“수비 향상 땀 역대급 계약 가능”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을 향한 시선이 뜨겁다.

KIA의 스프링캠프가 꾸려진 미국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 연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KIA가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야구 팬들은 물론 매의 눈으로 선수들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미래의 빅리거’를 찾기 위한 미국 메이저리그(MLB) 구단 스카우트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이들의 관심을 끄는 선수는 KBO ‘MVP’ 김도영이다.

12일에도 시카고 컵스, 뉴욕 메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관계자들이 캠프를 찾았다. 이들은 김도영의 움직임에 체크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남겼다.

지난주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카우트도 다녀갔다.

에이전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10년 총액 1조



KIA의 어바인 스프링캠프를 찾은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김도영의 수비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원 규모의 계약을 끌어낸 CAA스포츠의 발레로 대표도 얼마 전 캠프를 찾아 김도영을 지켜봤다.

MLB 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는 저스틴 유(사진)도 캠프를 찾은 빅리그 관계자 중 한 명이다. 미국 독립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그는 윤석민이 볼티모어에서 펄 때 통역을 맡아 KIA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박효준의 통역을 맡기도 했던 그는 변호사로 변신했다가 그라운드를 잊지 못해 다시 야구판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KIA 캠프에서 같이 훈련을 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최병용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그는 국내 선수들의 미국 야구 유학 중개도 하고 있다.

2023 드래프트를 통해 샌디에이고 선수가 된

최병용은 KBO리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뒤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가 MLB 지명을 받은 최초의 선수다.

“새벽에도 항상 KBO를 보고 있다”며 웃은 저스틴 유는 이의리와 김도영에 대한 MLB의 관심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린 선수지만 둘 다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특히 김도영은 역대급이 될 수 있다. 김하성과 이정후 같은 선수가 먼저 와서 잘한 것도 있고, 김도영처럼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훈련하는 것을 봐도 정말 뛰어나다. 수비가 점점 좋아지면 역대급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졌지만 아챔 16강이다

광주FC, 산둥 타이산에 1-3 패... 15일 수원FC와 K리그1 개막전

중국 원정에 나섰던 광주FC가 패배에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티켓을 차지했다.

광주는 지난 12일 중국 산둥성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산둥 타이산(중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1-3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는 2025시즌 첫 경기에서 승점을 더하지는 못했지만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광주는 빙속에서 전개된 이날 경기에서 대회 득점 1위(7골)인 아사니와 제주에서 돌아온 헤이스를 앞세워 산둥 사냥에 나섰다.

산둥을 이끌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 앞선 비셀고베(일본)와의 2차전에서 심판에게 폭언하는 등의 행위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이날 벤치에 앉지 못했지만 산둥의 외국인 선수들이 광주를 흔들었다.

광주는 전반 16분 울산 HD에서 ‘바코’라는 등록명을 사용했던 발레리 카자이슈빌리에게 오른발 슈

팅을 허용했고, 이는 골로 연결됐다.

전반 33분에는 선제골을 도왔던 포항 출신의 제카에게 추가골을 내줬다.

광주는 전반 35분 이문기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추격에 성공했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크리장의 헤더에 1-3패배를 기록했다.

앞선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 승점 13을 쌓아왔던 광주는 이날 패배에도 16강을 확정했다. 창단 후 첫 ACLE을 이끌었던 이정호 감독은 16강까지 이루며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광주는 중국 원정에서 16강 티켓을 획득했지만, 기대 자원들의 부상에 고민을 안고 리그를 출발하게 됐다. 이번 산둥과의 경기에서 변준수와 유재호가 부상으로 중도 교체됐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원중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FC를 상대로 2025 K리그1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원 클럽 맨’ 커쇼, 다저스와 ‘18년째 동행’

500만달러에 재계약 한 듯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통산 212승을 거둔 투수 클레이튼 커쇼(36)와 재계약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2일 “다저스와 커쇼가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다”며 “커쇼는 다저스에서 18번째 시즌을 보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SPN은 “2025년 커쇼가 500만달러(약 72억 6000만원)에서 1천만달러 정도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1988년생 왼손 투수 커쇼(사진)는 2008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줄곧 다저스에서 뛰어난 ‘원 클럽 맨’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세 번 받았고, 올스타 10회, 2014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12승 94패, 평균자책점 2.50이다. 지난 시즌에는 7경기에만 나와 2승 2패,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했다.

2023시즌이 끝난 뒤 어깨 수술을 받은 커쇼는



지난해 7월 복귀했다가 9월 초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그대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또 11월에는 무릎과 발가락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는 2025시즌 다저스와 맺은 선수 옵션을 거부하고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했으며, 이번에 다시 다저스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ESPN은 “커쇼가 올해 6월 정도에 다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저스는 커쇼의 합류로 안 그래도 막강한 선발진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